Special Feature

러시아의 지역단위 노동 수요독점 현상

Gi Khan Ten (세계은행 방문연구원)

■ 머리말

소련 경제는 정부가 자원의 배분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계획경제[1]를 기조로 하였으며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소련 경제의 특징은 도시 내에서 한 산업의 고용비중이 높은(때로는 과반수) 단일산업도시(monotown)를 출현시켰다. 단일산업도시는 과거 소련 시절에 중앙인력분배제도에 따라 해당 도시의 주요 기업(chief enterprise)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단일산업도시는 노동시장 수요독점의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데, 수요독점이란 단일 사용자가 인력수요를 독점하면서 노동시장을 통제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로 Robinson(1969)에 의해 널리 알려진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수요독점은 상품시장과 서비스 시장의 독점에 비견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독점이다. 수요독점 상황에서 사용자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경우, 임금이 낮아지고 고용은 줄어든다. 이와 같은 러시아 노동시장의 특징은 사용자 측면에서 노동수요에 대한 경쟁이 사실상 전무한 환경에서 고용과 임금의 관계를 실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단일산업도시는 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다.

1) 편집자 주 : 소련에서는 1980년대 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때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유지되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러시아를 포함하여 15개 국가로 독립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단일산업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노동자와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기술하고, 결론으로 글을 맺는다.

■ 역사적 배경

대부분의 단일산업도시는 1929년부터 1941년 사이 소련 경제가 급속하게 산업화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근대 역사학자들은 소련 정부가 서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생산시설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Meyerovich, 2018). 첫째, 높은 운송 비용 때문에 생산시설을 천연자원과 더 근거리에 위치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둘째, 외딴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세워지면 지역경제 균형발전(economic conversence)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에서 더 먼 곳에 핵심 생산공정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던 초기의 시도(1929~32년)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Meyerovich(2016)는 일부 지역의 인구밀도가 1헥타르당 0.5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핵심 생산시설 주위에 주거지역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도시의 핵심 생산공장을 '산업별 주요 기업(city-forming enterprise)'이라고 명명하면서 근대 단일산업도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최초의 단일산업도시는 천연자원(마그니토고르스크(Magnitogorsk), 노보쿠즈네스크(Novokuznetsk) 등), 군수품 공장(알렉신(Aleksin), 유르가(Yurga) 등), 발전소(수보로프(Suvorov) 등)와 기타 주요 탄광 및 생산시설이 위치한 인근 지역에 만들어졌다. 거주자는 대부분 정부가 직접 임명한 전문가, 제대한 군인, 범법자들이었다. Meyerovich(2018)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단일산업도시로 이주한 노동력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제2차 세계대전(1941~45)과 이후 기간 단일산업도시의 발달 과정을 보면,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존의 산업별 주요 기업들 하나의 생산체인으로 연결하고 전반적으로 생산품을 다변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개

혁안에 따라 1960년에 새로운 산업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원자력공학과 우주공학이 발달하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폐쇄도시(closed town)가 출현하게 되었다. 폐쇄도시로 가장 잘 알려진 도시는 세계 최초의 우주기지인 '바이코누르 우주기지(Baikonur Cosmodrome)'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소련 경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수십 년의 산업화 기간 전반에 걸쳐 역량 제약(capacity constraint)이라는 지속적인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에 의해 생산 목표가 통제되었으며, 이는 공장 과잉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최종 생산품의 품질 및 수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공장의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데 지나치게 중점을 두면서, 기술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설립해야 했는데, 이는 경제적 수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역사학자 로버트 빈센트 다니엘스(Robert Vincent Daniels)는 저서 『공산당 혁명의 종말(The end of the Communist revolution)』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계획경제체제는 상당히 단순했다. 국가계획위원회(Gosplan)가 국가 전체의 자원과 시설 총량을 산출하여 사용 우선순위를 정해 생산 목표와 공급 할당량을 여러 경제 부처에 전달하면 이는 다시 전체 산업과 기업에 전달된다. 분명히, 이 체제는 의미 있는 가격과 비용 정보가 부재하며, 근대 경제의 모든 특수한 상품과 기업들이 포함되도록 계획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근대 단일산업도시는 소련 체제가 남긴 유산 중 하나이다.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 단일산업도시에 입주했던 핵심 생산시설들은 민영화되거나 완전히 폐쇄되었다. 다음 '현황'에서는 단일산업도시가 집중된 지역(현재 러시아에서는 연방주체(federal subjects)[2])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다.

2) 러시아의 연방주체는 한국의 행정구역인 '도'와 유사한 지역 구분이다. 이 글 전반에서 '연방주체'와 '지역'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현 황

단일산업도시의 생활 수준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에 특화된 곳을 제외한 다른 단일산업도시에서는 인구감소, 생활 수준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단일산업도시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더욱 심각해져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에 GDP 대비 단일산업도시 생산비중은 35%에서 16%로 감소하였다(Uskova et al., 2019).

단일산업도시의 규모 : '복합전략연구소(Institute for Complex Strategic Studies : ICSS)'가 발표한 최신 자료(ICSS, 2017)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총 319개의 단일산업도시가 있으며 전체 러시아 인구의 9%(약 1,320만 명)가 이들 도시들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총 85개의 연방주체가 있는데 그중 61개에 단일산업도시가 존재한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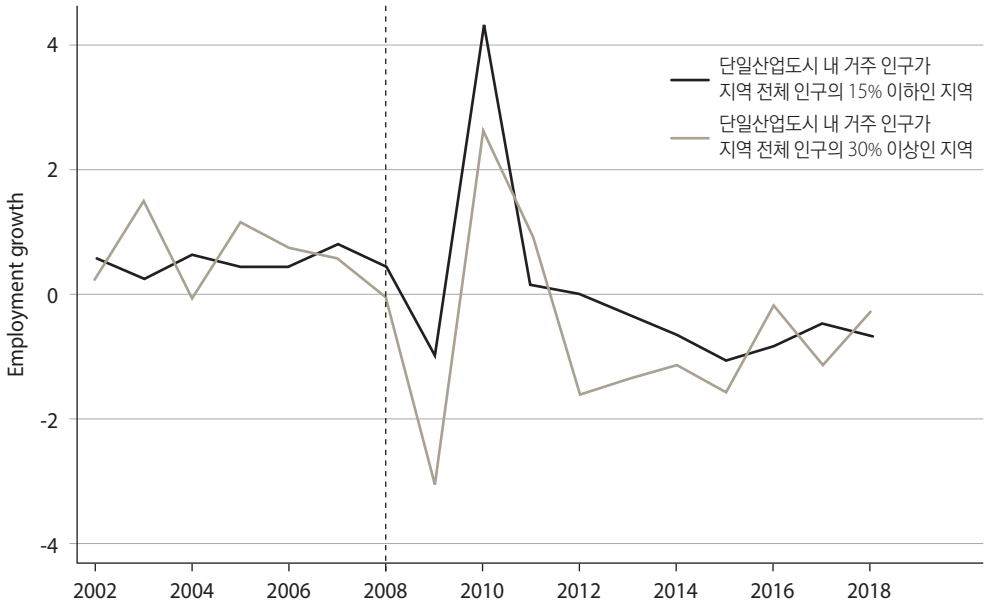
ICSS에 의하면, 단일산업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방주체는 케메로보주(Kemerovo oblast)로 이 지역 인구의 60.2%가 단일산업도시에 거주한다. 그 다음이 첼랴빈스크주(Chelyabinsk oblast), 볼로고드스카야주(Vologodskaya oblast)로 이 지역 인구 중 단일산업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각각 32.3%와 30.7%를 차지한다. 이 세 지역에 하카시아 공화국(Khakasiya republic), 스베르드롭스크주(Sverdlovsk oblast), 타타르스탄 공화국(Tatarstan republic), 아르한겔스크주(Arkhangelsk oblast), 사마르스카야주(Samarskaya oblast), 카렐리아 공화국(Kareliya republic), 아무르스카야주(Amurskaya oblast)를 더하면, 지역 인구 중 단일산업도시 거주 인구 비중이 높은 10대 연방주체가 된다. 10대 연방주체의 단일산업도시에 7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산업 특화 : ICSS의 추산에 의하면, 단일산업도시의 과반수는 광업이나 제조업 또는 기계산업에 특화되어 있다(319개 단일산업도시 중 143개가 이에 해당하며, 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단일산업도시 인구의 60%를 차지한다). 또한 약 38개의 단일산업도시가 경공업에

3) 2020년 현재 러시아에는 총 85개의 연방주체가 있으며, 각 연방주체는 행정수반, 의회,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주체는 헌법상 지위에 따라 연방시(federal cities), 공화국(republics), 지방(krais), 주(oblasts), 자치주, 자치구로 구분된다.

[그림 1] 고용증가율

(단위 : %)



주 : 1) 고용증가율은 전년대비 평균치임.
2) 세로 점선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나타냄.
자료 : 러시아 연방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특화되어 있다. 군수산업, 원자력산업 및 운송산업이 특화된 단일산업도시의 수는 더 적으며, 전체 단일산업도시 인구의 8%만이 해당 산업이 특화된 단일산업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임금 및 고용 : 일반적인 수요독점 이론에서는, 임금과 고용이 해당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정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본다. 고용 역학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우선 러시아의 지역을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연평균 고용증가율을 도표화하였다(그림 1 참조). 첫 번째 그룹(그림 1의 흐린 선)은 지역 인구의 30% 이상이 단일산업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방주체(단일산업도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두 번째 그룹(그림 1의 진한 선)은 단일산업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15% 이하인 연방주체(단일산업도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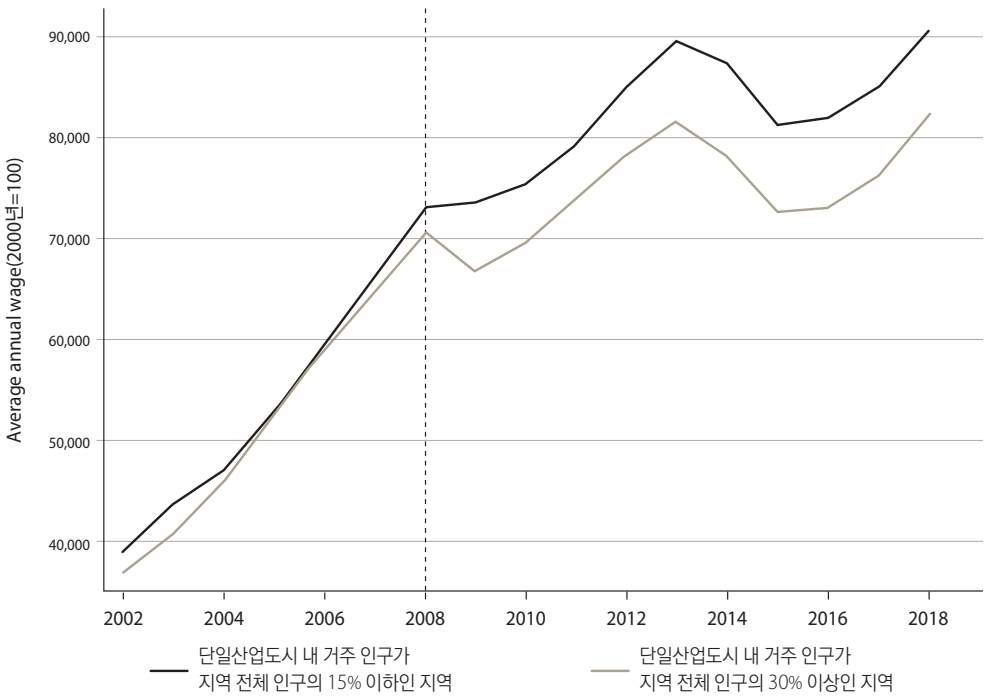
4) 엄밀히 말하면, 단일산업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 내 단일산업도시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1]을 보면 단일산업도시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이전에는 두 그룹의 평균 고용증가율이 동일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체 인구 대비 단일산업도시 내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2008년 이후로 고용률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과 동일하게 구분한 두 그룹의 연평균 임금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두 그룹 모두 경제위기 전에는 평균임금이 거의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원유 가격이 높았는데,[5] 이것이 경제 전체의 가파른 임금 증가에 부분적

[그림 2] 연평균 임금

(단위 : 루블화)



주 : 1) 불변가격으로 나타낸 연평균 임금(기준연도 : 2000년)
2) 세로 점선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나타냄
자료 : 러시아 연방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편집자주 : 러시아 경제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의존도가 높아(원유 및 가스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40%) 경제가 국제유가 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거시경제적 충격을 겪은 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오늘날까지 평균임금에서 상당한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부의 단일산업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일산업도시가 제품 생산이나 인구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아직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소련 체제의 유산으로서 단일산업도시는 여전히 현대 러시아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둘째, 단일산업도시의 과반수는 광업이나 제조업 또는 기계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표준직업분류(ILO, 2012)에 의하면, 이러한 산업의 일자리는 정형화된 단순·반복적인 직업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동이동과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2008년 경제위기를 통해 노동시장별로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는 정부의 개입 결정을 합리화하는 주요 논리의 하나가 되었다.

■ 단일산업도시에 대한 정부 정책

2008년 경제위기로 단일산업도시 내의 주요 거래 기업들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했다.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 의하면 세계 32위 규모의 철강업체인 '마그니토고르스크 철강(Magnitogorsk Iron and Steel Works)'이 노동자 3,000명의 정리해고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러시아의 트럭 및 엔진 제조사인 카마스(KAMAZ)는 1,5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러시아 전역에서 다수의 탄광이 폐쇄되었다.

2009년 대규모 항의 시위가 계속되자, 러시아 정부는 270억 루블(한화 약 3,923억 원, 연간 GDP의 0.07%)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추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기존의 생산체제를 현대화하고 다변화하는 기업별 전략을 갖추도록 했다. 더욱 명확한 선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산업도시에 입주한 모든 주요 기업에 표준화된 양식에 따른 투자 계획을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정부는 단일산업도시 주요 기업의 최종 생산품을 직접 주문하여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중소기업들은 세금감면,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정부조달 경쟁입찰 참여

의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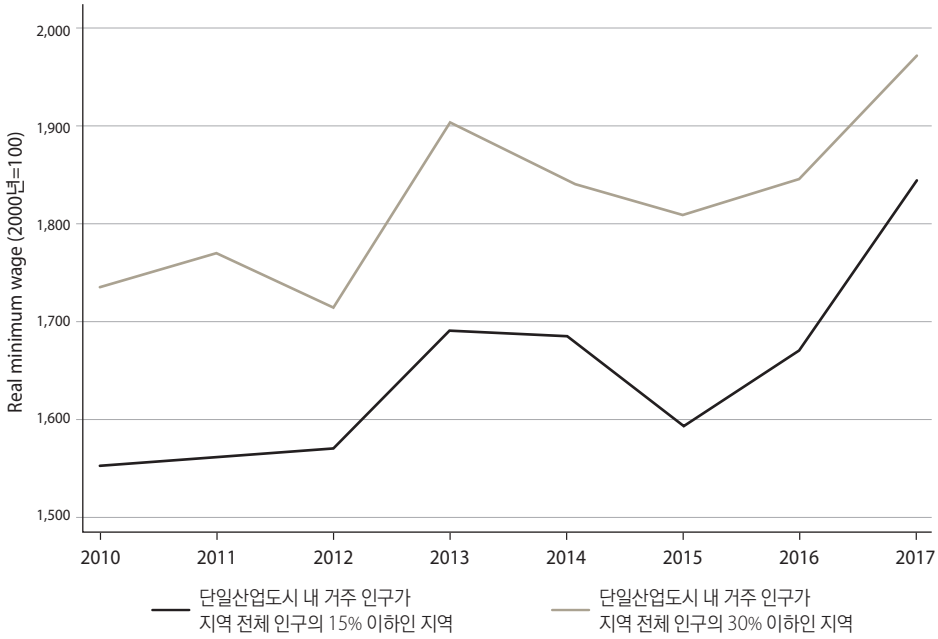
Basargyn(2011)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의해 일자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정부 개입 전후를 단순 비교하면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수치를 확인해 보면 2010년 한 해에 43만 4천 개의 임시직과 10만 개의 상시직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났다.

또 다른 이슈는 최저임금의 결정이다. 러시아에서는 연방 최저선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법제화할 수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역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3자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그림 3]은 [그림 1], [그림 2]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인구밀도로 구분한 두 그룹의 최저임금 추이를 보여준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Neumark et al., 2014 참조), [그림 3]은 단일산업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정부의 단일산업도시 관련 2차 정책 조치는 2014년에 시작되었다. 첫째, 정부는 지역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모든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 제477호를 통과시켰다. 둘째, 최대 규모의 국책은행인 투자개발공사(VEB.RF)를 통해 '단일산업도시 개발기금(Monotown Development Fund)'을 설립하였다. 단일산업도시 개발기금은 단일산업도시에 대출 및 교부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기금의 95%를 시단위 인프라 개발에 투입한다는 명확한 조건하에 단일산업도시는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받았다. 국내의 유수 컨설팅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일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사상 최초로 정부는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단일산업도시 거주자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집중화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생산업체(단일산업도시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공공장소, 광장 및 거주지역 보수에도 투자하였다. 주요 정부 관료들에게는 모스크바 경영대학원인 '스콜코보(SKOLKOVO)'와 '러시아 대통령 산하 국가경제 및 공공행정 아카데미(Russian Presidential Academy of National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대출

[그림 3] 최저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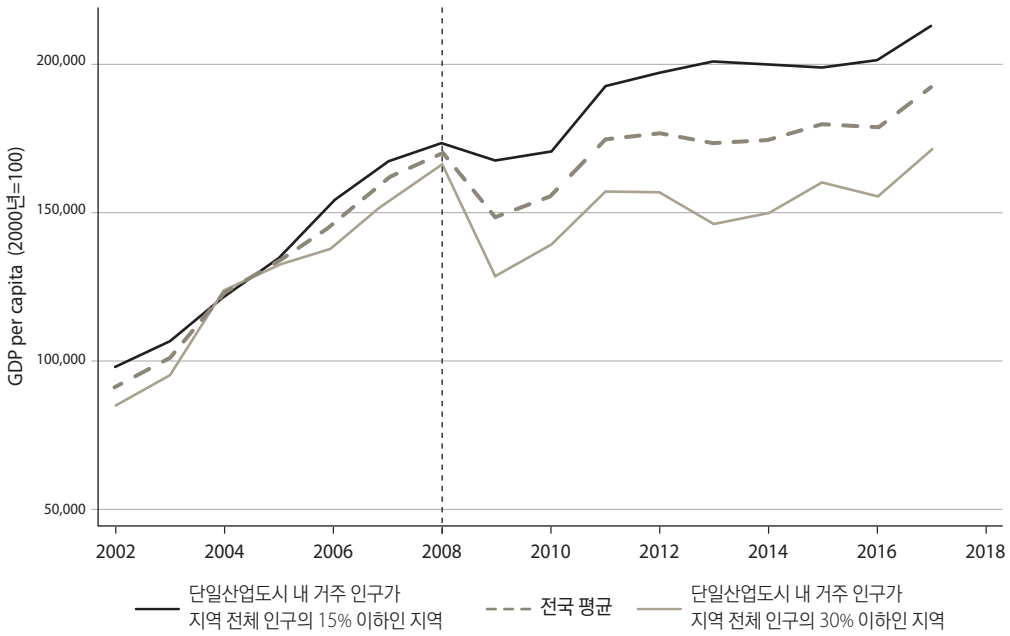


주 : 실질 최저임금(기준연도: 2000년)을 연도별로 도표화하였다.
자료 : 러시아 연방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관리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모든 단일산업도시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5년간 무이자로 최대 2억 5천만 루블(미화 약 4천 2백만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다. 대출조건은 두 가지로, ① 은행대출 연체가 없고 ② 기업 차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일산업도시는 지역경제를 러시아 전체 평균 수준으로 개선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남아 있다. [그림 4]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단일산업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1인당 GDP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산업도시에 지속적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형태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의 정책 관료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림 4] 1인당 GDP



주 : 연평균 1인당 GDP(기준연도 : 2000년).
자료 : 러시아 연방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파블롭스크(Pavlovsk)시 시장 브야체슬라프 세르바코프(Vyacheslav Sherbakov)는 2018년 6월 25일 러시아 언론사인 타스(TAS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구제금융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지역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되기도 한다. 양면의 날을 가진 칼이다. 이러한 지원에 영원히 의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획자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정부 지원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6)]

더 최근에는 (러시아 재정관리 의회기구인) 러시아 감사원장 알릭세이 쿠드린(Alexei

6) URL: https://tass.ru/ekonomika/5320726 [Last accessed: October 15th, 2020].

Kudrin)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이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단일산업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우리는 계속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저 단일산업도시를 끌고 가고 있다."[7]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에 단일산업도시들 간에 급격하게 격차가 발생하자 개입을 결정하였다. 초기의 정책은 주로 지원이 필요한 단일산업도시에 사용자가 고용창출 계획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주요 기업에 직접 주문하여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단일산업도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차 개입 조치에도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구제금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서 주요 정책 관료와 중소기업 소유주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단일산업도시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일부 정책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노동시장 수요독점 도시인 단일산업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러시아에 단일산업도시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단일산업도시의 현황을 기술하며 단일산업도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단일산업도시는 사용자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임금이 더

7) URL: https://rg.ru/2019/11/28/reg-sibfo/vyzhutovich-socialno-ekonomicheskaia-situaciia-v-monogorodah-ostaetsia-slozhnoj.html [Last accessed: October 15th, 2020].

증가하지 못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수요독점의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이론적 예측과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단일산업도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임금 및 고용 패턴의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단일산업도시에 만성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과다부채(debt overhang)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이 정책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단일산업도시는 러시아 경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표면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여 산업별로 주요 기업을 모아놓은 집적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후 갑자기 러시아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이전 체제에서 만들어 놓은 지역별로 특정 산업이 집중된 경제적 지형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집적 도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건전한 시도로써, 노동시장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논의의 폭을 그 이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KLI

참고문헌

· Basargyn, V. F.(2011), "O problemah monogorodov", *AETAP: ekonomicheskaya teoriya, analiz, practika,* 3. [RUS: Басаргин, В. Ф.(2011), О проблемах моногородов, *ЭТАП: экономическая теория, анализ, практика*, 3]

· Daniels, R. V.(2002), *The end of the Communist revolution*. Routledge.

· Institute for Complex Strategic Studies(2017), "Review of Russian monotowns", ICSS Analytical Report. [RUS: Институт комплексн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2017), Обзор Российских моногородов. Аналитический доклад ИКСИ]

· International Labour Office(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08.

· Meyerovich, M. G.(2016), "Prichiny vozniknoveniya monogorodov v SSSR", *Sovremeny gorod: vlast', upravleniye, ekonomika*, 1, 260-271. [RUS: Меерович, М. Г.(2016), Причины возникновения моногородов в СССР. *Современный город: власть, управление, экономика*, *1*, 260-271]

· _____(2018), "Sovetskiye monogoroda: istoriya voznyknoveniya i specifika", *Vestnik Kemerov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1(73). [RUS: Меерович, М. Г.(2018), Советские моногорода: история возникновения и специфика. *Вестник Кемер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73)]

· Neumark, D., J. I. Salas and W. Wascher(2014),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ILR Review 67*(3), 608-648.

· Robinson, J.(1969), *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2nd ed. London: Macmillan.

· Uskova, T., A. Nesterov, L. Iogman, S. Tkachuk & N. Litvinova(2019), *Monogorod: upravleniye razvitiyem*. Litres. [RUS: Ускова, Т., Нестеров, А., Иогман, Л., Ткачук, С., & Литвинова, Н.(2019), *Моногород: управление развитием*. Litres.]